

# 카트만두 폐허... 히말라야 산악인 수십명 사상

## 네팔 지진 이모저모

### 통신 불안정 수색작업 더더 한국 등 국제사회 지원 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건물 잔해 속에 숨진 이들이 있고 다진 채로 신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미렌드라 리잘 네팔 정보장관은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45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지진 진원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았다는 점도 피해를 키웠다.

네팔 지진은 25일 정오 직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km, 대표적 휴양·관광도시인 포카라에서는 동쪽으로 68km 떨어진 람중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1km로 얕은 편이다.

영국 개방대학(the Open University)의 데이비드 로서리 교수는 “(네팔 지진의) 진원이 얕았기 때문에 지표면의 흔들림이 더 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대부분 지역이 견고한 기반암을 토대로 해 그나마 지표면의 진동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로서리 교수는 전했다.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은 이번 강진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카트만두 계곡 지역 일대에는 인구 250만명이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에 밀집해 살고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인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카트만두 북쪽 70km



네팔을 강타한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서는 눈사태가 일어나 최소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사진은 눈사태가 들이닥친 지난 25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모습. /연합뉴스

에 있는 여퍼 트리슬리 지역에서 건설업체의 한국인 직원이 가볍게 다쳤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네팔에 우리 국민 650명 정도가 체류하고 여행객도 다수 있는 만큼 피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

고산 등반을 위해 세계 각국의 탐험가들이 몰려드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군에서도 지진의 여파로 산사태가 일어나 사상자가 나왔다. 현지 언론과 산악인들의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을 준비하던 산악인 14~17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의 전문 산악인 동향을 잘 아는 대한산악연맹은 한국인 전문산악인들의 피해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밝혔다.

지진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네팔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야간에도 헬리콥터로 수색 작업을 펼쳤다. 그러나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이 지진 여파로 불안정해진 데다가 끊기거나 막힌 도로가 많아 작업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의 심각성이 전파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네팔에 100만달러 규모 자금을 긴급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들도 구호에 나서 구내이버스는 4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식수정화기, 방수포, 필수영양제, 담요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 나서기로 했

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넛팔에 총 1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네팔에 긴급 재난구호팀을 파견하고 초기 구호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등도 지원을 약속했다.

1832년 세워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카트만두의 ‘랜드마크’ 다리 하라(빈센) 타워는 이번 지진에 완전히 무너졌다. 뉴욕타임스는 박타푸르 두르바르 광장 등 네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총 7곳 가운데 4곳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체 불가능한 문화 유적의 손상이 있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 이용우씨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 됐다

###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용우 세계비엔날레협회 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5월 9일~11월 22일) 심사위원에 초빙됐다.

베니스비엔날레조직위는 최근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 5인(미주지역 1명, 유럽 2명, 아시아 2명)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위원에 초빙된 인사들은 이용우 세계비엔날레협회장 외에 전 뉴욕현대미술관 수석큐레이터이자 현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현대미술관 관장인 자비네 브라이트비저(Sabine Breitwieser), 비엔나 21세기 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마리오 코도나토(Mario Codognato), 시카고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나오미 벡위스



(Naomi Beckwith), 인도의 저명 미술비평가이자 시인인 란지트 호스코테(Ranjit Hoskote) 등이다. 이번 심사위원들은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2개와 차석상인 은사자상 1개, 그리고 특별 언급상 3개 등을 심사한다.

한편 제56회 2015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은 오쿠이 엔위저 2008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이며, 한국관 작가는 2012광주비엔날레 논 예술상 수상작가인 전준호·문경원이다. 본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된 남하연·임훈순 씨도 광주비엔날레 출신 작가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소득 211만원 이하 4인가족 교육급여 지원

### 7월부터 맞춤형 보장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이 된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히말라야 원정대 무사...인근 안전지대 대피

네팔 중부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여파로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히말라야산군에도 눈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현지에 머물던 광주·전남 원정대 등 국내 전문 산악인들은 대부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5일 지진 발생 이후 눈사태와 여진이 계속되자 등반을 중단하고 베이스캠프를 떠나 인근 마을 등 안전지대로 대피했거나 대피 중이다.

광주시산악연맹과 대한산악연맹, '2015 한국로체원정대' 등에 따르면 현재 네팔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국내 원정대는 5~6개팀으로, 이 가운데 3개 원정대에 광주·전남 산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예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하는 김홍빈(51·트레스타

홍보이사·송원대산악회OB) 대장의 로체원정대는 지진으로 눈사태가 계속되자 26일 에베레스트·로체 베이스캠프(해발 5400m)를 떠나 마지막 마을인 고락셀(5288m)으로 철수했다.

김미근(43·한국도로공사산악팀·서강정보대OB) 대장이 이끄는 ‘한국안나푸르나 원정대’ 대원 3명은 현재 베이스캠프에 체류중이다. 김 대장은 지난해 브로드피크 정상을 밟으면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2개 봉만 남겨놓고 있으나 현지 기상과 대지진 이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등반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하는 송경태(54) 전북시각장애인도 서관장을 주축으로 한 에베레스트 원정

대 대원들도 고락셀으로 철수할 예정이 대. 이 원정대에는 지역 출신 나관주(48·서강정보대 산악회OB) 대원이 참가하고 있다.

지진 당시 에베레스트·로체 베이스캠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1000여명의 산악인과 셰르파가 머물고 있었으며, 일단 눈사태로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6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6일 오후에도 규모 6.7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는 등 눈사태가 계속돼 추가 피해와 구조작업 지연이 우려된다.

이번 눈사태에 따른 사망자 중 구급 임원 댄 프레데리버그는 다른 구급 직원 3명과 함께 에베레스트 하이킹에 나섰다

가면 땀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 내진 설계 안된 한국 지진 5.0 이상엔 대참사

네팔에서 강진을 계기로 과연 한반도는 지진에서 안전할지가 또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워낙 규모가 강력한 데다 ‘내진 설계’가 전혀 되지 않은 허름한 주택들이 많아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육상에서 나면 건물 벽의 균열이 일거나 낡은 건물의 경우 무너져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건물 내진 설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이날까지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3회 관측됐다. 연평균 발생 건수는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1980년대 16회에서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2014년 58회로 크게 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성완중 메모’ 주변인물 줄소환 임박

### 경남기업 은닉자료 일부 확보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측이 빼돌린 의혹 관련 증거물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의 신병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대체로 마무리한 검찰은 유력한 물증을 추가로 찾아내는 한편 이번 주 안에 메모(‘성완중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경남기업 비자금 수사 당시 은닉된 자료 일부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찾았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지난달 빼돌

린 자료 중 비자금 조성과 용처 등이 담긴 자료를 일부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뇌물 장부’ 형식의 증거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메모 속 의혹을 유의 미한 시점별로 구분하고 여러 참고인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불러 심층 조사하고 있다”며 “기초공사가 해당하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금품제공 의혹의 주요 시점별로 성 전 회장과 주변 인물의 과거 동선을 거의 복원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Kams Inlay를 이용한 시술/초정밀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저를 나비처럼 미세하게 삽입하여 노안치료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8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4. 28(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운 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3.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4.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5. 소액투자도 월세받는 비법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마케팅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